

정부 예산, 불교보다 개신교가 많았다

화엄광장·불교미래사회학, 정부 종교 예산 분석

템플스테이와 문화재 보수유지비 등으로 불교계가 정부 예산 지원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부 개신교 측이 주장이 유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엄광장(회장 성직)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후)는 4월 3일 정부 종교지원예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기사 4면**

그간 일부 개신교 측은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2010년에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놓고 대구 개신교계가 이를 비방하는 동영상 제작 배포해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 조사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3대 종교의 정부 예산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시비를 종식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실제 이번 연구조사는 중앙정부 부처 15부 2처 18청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행한 부처의 일반, 특별회계, 기금 내역을 바탕으로 이뤄

졌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주장대로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종교는 불교일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은 종교는 개신교에 가까웠다.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개신교는 2010년

3년간 종교계 예산 추이 조사 불교, 문화부·문화재청 편중

개신교, 지원 규모 가장 높고 교과부·복지부·여성부 독식

1183억 원, 2011년 136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줄기는 했으나 1148억 원이 지원됐다.

반면 불교는 2010년과 2011년 800~900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2012년 1270억 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예산만 놓고 볼 때 불교와 개신교는 120억 원의 예산 차이를 보이거나 3년 간의 추이를 산정하면 개신교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각 부처별 종교지원 예산도 차이가 있었다. 불교의 경우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편중돼 있었으며, 그 비율은 불교계 전체 지원 예산의 65%에 달했다.

개신교의 경우 사학과 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만큼 교육과학기술부(2012년 727억 원)와 보건복지부(2012년 272억 원)에서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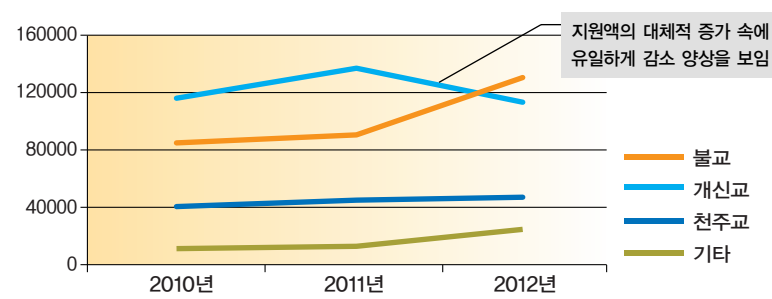
또한 종교 예산을 지원한 8부 1처의 정부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처에서 개신교가 사업 예산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개신교 지원 예산이 전체 종교 예산 중 57%에 달하며 여성가족부는 65%, 외교통상부는 77%, 교육과학기술부는 70%의 종교예산이 개신교에게 지원됐다. 사실상 불교계의 대사회적 사업

종교별 예산지원 규모

종교	2010년	2011년	2012년
불교	82,660	93,085	127,048
개신교	118,322	136,231	114,858
천주교	39,717	42,701	44,204
기타	10,172	12,648	22,371

정부 종교지원예산 추이



영역의 인프라가 개신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연구조사에 대해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개신교의 국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사업에 편중돼 있다. 불교와 같이 완결 예산이 아니라 데이터가 완결하지 않다. 전년 대비 국고 예산이 줄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개신교 예산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고 지원

이 불교계에 편향돼 있다는 주장이 허구이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간 정부의 종교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종교는 개신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개신교에 대한 예산 편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차원적인 조사가 아닌 다각적 차원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증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선양회는 4월 3일 동국대에 만해마을을 기증했다. 사진은 기증식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만해마을 동국대에 기증

만해선양회, 3일 기증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는 4월 3일 인제 만해마을 시설 일체를 동국대에 기증했다.

"만해마을을 무상증여 계약 체결식"에서 오현 스님은 "만해마을은 만해 스님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스님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만해마을의 동국대 기증은 스님의 정신을 보다 널리 퍼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기증식에 참여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만해 스님의 민족자주정

신과 불교개혁정신, 그리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해마을이 국민들의 교육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만해마을의 기증은 500여 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과 서예·시집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국대의 교육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매년 만해마을과 인제군 일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만해 축전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설 31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니다

교육원장 스님 등 교육원 교직원 스님 캠페인 동참 본지 연재 필진들도 원고료 보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교육부장 법인 스님, 불학연구소장 해명 스님과 교육원 교직원 스님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금일봉을 희사했습니다. 또한 본지 연재 필진들도 원고료를 심심일만 보시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현응 스님 교육원장
법인 스님 교육부장
해명 스님 불학연구소장
가섭 스님 교육국장
진광 스님 연구국장
석중 스님 연구소 사무국장

■ 캠페인에 동참한 본지 필진
한복 스님, 강우방 교수, 홍광표 교수, 김홍성 교수, 고영섭 교수, 유정길 대표, 박동준 소장, 오종욱 위원, 최주현 화가

■ 문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주)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보급받으시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935호 INDEX

- 종합 2·3
대법원, 전통신사 등기예규 제정
조계종 출가활동과 특위 구성
사회통합을 위한 발전방안
대불련, 법인화 필요하다
- 시방세계 5
금산사 노동자 템플스테이
- 수덕사, 국제선수행대회 연다 11
- 새연재 미안하 불교이야기 13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연등회 알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스웨덴, 리투아니아, 몽골 등 20개 국가에서 온 70여 젊은이들이 손을 흔들며 활기찬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와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가 모집한 '2013 연등회 국제 자원봉사자'들로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주간 한국불교역사문화연등회에 대해 배우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후 5월 11~12일 불교한마당 및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관련 기사 6면**
글=이은은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자운대율사 탄신100주년 기념세미나

자운대율사님께서는 한국불교의 율맥을 이어받아 근세 한국불교 율풍을 크게 진작하신 종단의 큰 스승이십니다.

대율사께서는 종단의 전계대화상이 되어 흐트러진 계단을 정비하시고, 구족계단,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 보살계단을 정립하여 수많은 사부대중을 불문으로 인도하여 수계를 배부셨습니다.

이번에 대율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단의 고승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께서는 관심을 가지시어 참석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일시 _ 2013년 4월 12일 (음 3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총무원청사) 국제회의장

내용

- 종단 대표 축사 : 총무원장스님, 원로의장스님
- 기조발표 : "문수보살과 자운대율사"(인환 큰스님 원로의원)
- 1 발 제 : "율풍진작을 통한 한국불교중흥의 행적"(법혜스님 전 동국대교수)
- 점심공양 : 11시 30분 ~ 12시 30분(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식당)
- 2 발 제 : "대승보살계행포와 무생계첩의 제종"(허홍식교수 한국학연구원교수)
- 3 발 제 : "유교법회정신의 계승과 봉암사결사·해인총림도량에서의 역할"(법진스님 전 해인사승가대학 학장)
- 4 발 제 : "선정율의지의 수행문을 열다"(태원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 5 발 제 : "참법수행과 예참의례의 유통"(미동스님 전 조계종불교문화연구소 소장)
- 6 발 제 : "삼밀을 엄정히 수행한 문수행자"(혜능스님 전 해인총림 율원장)
- 총 정리

자운대율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대표 세 민